

# 진안의료원 손실비용 5억 편성

### 전북도, 이한기 도의원 주장 수용 긴급수정예산으로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 예산안 확인 결과, 지방의료원(군산, 남원)은 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과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 국·도비 예산이 200억 원 규모지만, 진안의료원은 기능보강 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4천9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전북도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불가 뜻을 고수하면서 도 남원의료원의 경우, 공익적 손실

비용을 지원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주·진안·장수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원 손실 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전북도는 이한기 의원 주장을 수용, 진안의료원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비용 지원사업비 도비 5억 원을 긴급수정예산으로 편성했고, 예결위 심사를 거쳐 13일 제386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한기 의원은 "진안의료원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무진장 등 동부권지역의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맡고 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동부권지역의 의료원들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손실비용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제도적 근거 마련

### 황의탁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전국 평균 79%가 증가했고, 특히 전북도의 경우 꾸준히 증가했다"라며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 때 빠르면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영재 발굴"

### 황호진 전 부교육감 '영재발굴센터' 설립 연중 상시 발굴 전환 강조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전라북도교육청과 학교 교육원'에서 창의적 영재교육을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황 전 전북부교육감은 "교육청 산하에 초·중·고등학교부터 중학생까지 영재를 발굴하는 상설 '영재발굴센터(가칭)'를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발간한 '수도권에서만 영재가 나는 불편한 진실' 2021 국정감사정책자료집에서도 제안된 내용으로, 학원 등 사교육을 통해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재발굴센터를 상설운영해 선발과 교육을 분리하고 일차적 시험 중심 영재 선발에서 연중 상시 영재발굴로 전환하는 것이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의 영재교육은 영재교육기관, 영재교육교원·영재교육대상자 등이 모두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며 "이는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영재교육에 관한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영재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러 "영재교육은 과학·수학 등을 잘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인문사회·발명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이 학생들의 우수한 영재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담양교육포럼 관계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행한 '2019년 영재교육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영재교육대상자 수는 2008명, 영재교육기관 수는 29개, 영재교육교원 수는 528명이었는데, 이 수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전북보다 적은 수치를 보인 곳은 제주, 세종 강원 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무주)이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심리지원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황의탁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 "현행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 구성 방식 부적절"

### 박용근 도의원 "지방의원 원천적 참여 배제, 지방자치 취지 역행"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 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함"이라고 규정돼 있다.

박용근 의원은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범위 확대의 관점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지방의회의원의 참여 또는, 지방의회 추천에 관한 규정을 삽입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유호상 기자

한편, 원안본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심사 조사 매뉴얼'에는 '(지방재정

## 전북선관위, 대선 등 대비 전북경찰청과 대책회의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전북지방경찰청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선관위 지도과장, 조사팀장관, 광역조사팀장을 비롯해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수사계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양 기관 간 지원사항 및 협조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허리띠를 조여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새만금개발공사 '고군산군도 에코섬 서포터즈' 출범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병재, 이하 공사)는 14일 고군산군도 에코섬 서포터즈 출범식을 열고, 1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고군산군도 에코섬 서포터즈는 ▲고군산군도 지역주민, ▲군산시, ▲군산대, ▲OCI SE(주), 도레이첨단소재(주), 솔베이실라카코리아(주) 등 새만금 입주기업, ▲한국서부발전(주), SK E&S 등 투자사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공사가 사회공헌 활동 일환으로 전개해 온 '고군산군도 에코섬 웰린지'의 추진체계를 지역사회 거버넌스로 전환해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지역사회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구성됐다. /유호상 기자

## 주한슬로바키아부대사 방문

### 지자체 교류협력 방안 협의



브라티슬라바 흐라드스키 주한슬로바키아 부대사가 14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과 슬로바키아 트르나바 주 간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주한슬로바키아 대사관에서 슬로바키아 트르나바주의 협력대상 지역으로 전북도를 우선 선정, 추천해 이뤄졌다.

방문일정은 양 지역에 상호 이익이 될 교류방안 모색을 위해 정무부지사 면담, 전북대학교 및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 등으로 진행됐다.

흐라드스키 부대사는 "최근 한국과 슬로바키아가 포함된 중유럽 4개국(V4: 헝가리, 체코, 폴란드, 슬로바키아)간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 국가의 지자체간 교류도 탄력을 받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 기술 관광, 문화, 교육 등 여러 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부지사는 "전북은 특히,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 중심지로서 최근 김제에 전국 최초로 21.3ha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준공했다"며 "전북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취

# "대선 승리 위해 역량 집중하자"

### 김윤덕 의원 강조... 민주 전주갑 당원연수 성료

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 지역위원회가 14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 호텔에서 당원 연수를 열고, 성인지교육과 대선승리를 다짐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열린 이번 당원연수에는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당 소속 지방의원 등 당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윤덕 의원은 강연을 통해 "지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소중한 전주갑 당원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여러분들의 수고로움이 이재명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개선 의지와 바깥 실효 없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국민들은 민주 세력의 재집권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 줄 것"이라면서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전주갑 당원동지들이 중심이 돼 반드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우리 전북이 희망찬 밝은 미래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자"라며 대선에서의 당원들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200세대 중심의 대전환 선대위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다진 바 있다. /유호상 기자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뉴칼라 시대, 도전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군산상고 초청으로 열린 이번 명사 특강에서 신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새로운 직장인 '뉴칼라(New collar)'를 미래를 바꾸고 세상을 이끄는 도전자로 정의했다.

신 의원은 "뉴칼라가 미래의 인재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뉘던 기존의 직업 기준과 학벌·전공·출신 등으로 정해지던 진로의 틀을 깨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며 "이무도 가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은 전북대 총학생회장으로, 1980년대 전북지역의 학생운동을 주도했고, 지역에서 청년 조직을 꾸린 것을 시작으로 전북자치기술원 행정실장,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경기도 교육감 정책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자신의 인생 역정을 전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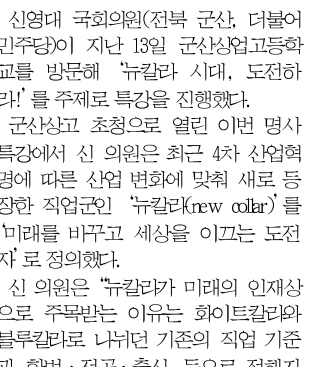
신 의원은 "내 인생은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며 "이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소신으로 다른 이들이 택하지 않은 길에 도전하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며 "뉴칼라 시대의 다양한 도전 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참신한 발상과 도전으로 창업에 성공한 여러 인물들을 소개하며, "자신의 강점과 역량을 바탕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 도전은 성공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험이 되고, 경험이 쌓여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 시간에 진행된 강연에서 신 의원은 청년 시절 겪었던 다양한 고민과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과 큰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신영대 의원은 "군산상고는 학생들을 위한 창업 및 취업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며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다"며 "미래를 준비하는 군산상고 학생들은 물론, 인재양성을 위해 애쓰는 최기석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 '뉴칼라 시대, 도전하라' | 신영대 의원, 군산상고 초청 특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3일 군산상업고등학교를 방문해 '뉴칼라 시대, 도전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신영대 의원이 "뉴칼라가 미래의 인재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뉘던 기존의 직업 기준과 학벌·전공·출신 등으로 정해지던 진로의 틀을 깨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라며 "이무도 가지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